

백원국 2차관, “한 치의 오차 없는 항공안전 토대로 힘찬 도약”

- 5일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‘항공안전’과 ‘소비자 보호’ 강조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5일(금) 오후 2시 김포공항 인근에서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(CEO)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 - 최근 국제선 운항이 증가하면서 '23년에는 '19년에 비해 약 90% 회복하였고 '24년에는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,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 또한 증가됨에 따라 ‘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다.
- 백 차관은 항공사별 ‘항공안전관리계획 및 소비자보호 강화계획’을 청취한 이후, “항공안전이라는 견고한 주춧돌 없이는 항공 산업이 존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”을 주문하면서, “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 - 또한, “정부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 - 한편, “항공 운항회복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였다”라면서, “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공기 증편 등을 통한 항공권 요금 안정화, 여객 서비스 개선 등 이용객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백 차관은 “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원칙을 확립하고, 올 한해 ‘11년 연속 無사망사고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”라면서, “겨울철 혹한의 추위에 노출되는 정비·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실 것”을 요청하였다.

2024. 1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